

국어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남기심 · 제6대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대학마다 국문과가 있고, 초·중·고의 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어 교육에 바치는 시간이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많은데 어째서 국어가 무엇이고 한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을까? ‘한글’은 국어를 적는 글자를 일컫는 것인데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국어’를 한결같이 ‘한글’이라고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저명인사, 정부 고위 관리,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한글이 국어인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것은 ‘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학생들을 끌어가지 못할 만큼 국어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뜻은 아닐까? 외국의 국어 교육도 이렇게 부실할까? 우선 교재만 봐도 우리와는 아주 다르다. 부교재가 본교재의 몇 흡이 되고 단어 한 개의 정확한 뜻, 올바른 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글을 읽히고, 얼마나 많은 예를 보이며, 얼마나 많은 연습을 시키는지가 금방 드러나 보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런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국어 교재, 국어 교육 자료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말’이 지난 엄청나게 큰 신비한 힘, 그 오묘한 뜻과 그것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드러나는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자아내는 혼란과 무질서가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국어

시간에 제대로 못 배우니 말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그래서 한글이 무엇인지 국어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뜻이 통하는 말, 좀 더 아름다운 말, 좀 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 사람이 전혀 없다. 오로지 어떤 말의 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표준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또는 뜻을 모르는 희귀한 단어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사전을 볼 뿐이다.

이것은 국어 교육이 아직도 옛날 문맹 퇴치가 우선이던 때의 국어관, 그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맞춤법과 표준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정책을 논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60, 70년 전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는 국어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어 현실이 심상하지 않다. 어엿한 국어가 있는데 대학의 강의를 영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국어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과연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국어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이제는 이러한 국어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과감한 정책 개발을 할 만한 역량이 생겼다는 뜻이다. 적어도 백 년 앞의 국어를 내다보는 고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